

환경

함평 '황금박쥐' 급감... 더 늦기 전에 관심 가져라

▲붉은박쥐 = 예기박쥐과에 속하며 '오렌지빛수염박쥐' 또는 '황금박쥐'라고도 불린다. 몸의 털과 날개가 무광택의 오렌지색을 띄고 있다. 보통 몸통 길이 48~57mm, 앞발 길이 45~51.5mm, 꼬리 길이 47~53mm, 귀 길이 16~17mm로 온도 13도, 습도 96% 이상인 동굴에서만 서식한다. 10월 초순에 동면을 시작해 다음해 5월 중순까지 동면에 들어간다.



지나친 홍보활동 노출빈도 늘어 서식지 파괴

예산 없어 보존사업 소홀... 감사요원이 전부

우리나라 최대의 붉은박쥐(일명 황금박쥐) 서식지인 함평군 대동면 일대의 붉은박쥐가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부족으로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리기본계획을 세워놓고도 예산이 없어 제대로 된 보호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함평군도 붉은박쥐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만 힘을 댈 뿐이라 정작 서식지보존에는 소홀한 상황이다.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함평군 대동면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 확인된 붉은박쥐는 지난 2005년 153개체에서 지난 2007년 115개체, 지난 2008년 92개체, 지난 2010년 73개체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지나친 홍보활동으로 인해 노출빈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사전촬영과 연구조사 등의 이유로 서식지에 왕래가 잦으면서 인위적인 간섭요인이 증가해 서식지가 파괴됐다는 것이다.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난 2005년

천연기념물 제452호로 지정된 붉은박쥐는 지난 1999년 이 일대에서 60여마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후 지난 2005년까지 해마다 개체수가 증가했다.

함평군 대동면 일대가 우리나라 최대의 붉은박쥐 서식지로 확인되면서 환경부는 지난 2002년 5월 대동면 일대 278만2000㎡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10년 단위의 관리기본계획을 세우고 모두 107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올해 모두 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박쥐 임시 잠자리 조성, 보전지역내 사유지 매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대부분 반영이 안돼 추진하지 못했다.

부족한 예산 탓에 외래식물 제거작업과 관리 감시 요원 파견, 조류 관찰대 설치 등이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보존사업의 전부다.

또 관찰 지자체인 함평군도 붉은박쥐 보존사업에는 소홀하다.

지난 2005년 모두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순금 황금박쥐 조형물을 제작하고, 황금박쥐생태관을 조성하는 등 '황금박쥐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리계획을 세워 놓고 해마다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아 감사요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자원순환제도 실무교육·정보교류

환경공단 호남본부, 재활용업체 대상 간담회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는 최근 광주·전남지역 42개 재활용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폐기물부담금 자발적 협약, 환경성 보장제 등 자원순환제도에 관한 실무교육과 토의, 업체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용업체 중 상당수가 정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담회가 자주 개최되어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6g '노랑눈썹솔새', 헤이룽장성 ~ 흑산도 1550km 비행

국립공원 철새연구센터, 이동경로 확인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9월29일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가락지를 달고 신안군 흑산도로 날아온 '노랑눈썹솔새'의 이동경로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에서 국내를 거쳐 이동하는 철새의 이동경로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랑눈썹솔새는 참새만한 크기의 딱새과 조류다. 오호츠크해 연안이나 중앙아시아에서 번식하고 파키스탄, 인도, 대만, 중국 남부지방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월동지로 이동하던 중 우리나라에 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개체는 100원짜리 동전 무게와 비슷한 6g의 가벼운 몸으로 헤이룽장성에서 흑산도까지 1550km 가량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일본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알락리크리발퀴가 월동지로 이동하는 과정에 흑산도와 흑도를 거치는 사실도 확인했다.

센터는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일

▲가락지부착조사 = 철새의 이동경로 연구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국가와 고유번호가 기입된 가락지를 조류에게 부착해 어디(부착장소)에서 어디(회수장소)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한다.



의 철새 이동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철새 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노랑눈썹솔새 이동경로



영산강·섬진강 생태학적 '안전'

영산강유역청, 주요하천 23곳 조사 특성 제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생태 특성을 평가한 결과 생태학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영산강청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광주·전남·제주지역의 주요 하천 23개 지점에서 조사를 진행해 생태특성이 모두 '0'인 것을 확인했다.

생태특성평가는 수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의 유입에 의해 나타나는 위해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물벼룩을 수계에 24시간 동안 노출시켜 반수가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농도를 바탕으로 결과를 계산한다.

영산강청 관계자는 "기존의 BOD와 COD, 중금속 등과 같은 물리화학적 평가와 더불어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특성평가를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의 생태학적 안전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이 수계에 유입될 수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태 특성을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제주 바다로 아열대성 어류 몰려온다

청줄돔 등 67종 전체 42% 차지... 40년간 수온 1.5도 상승

청줄돔(사진)을 비롯한 아열대 어류들이 제주 연안에서 정착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는 최근 3년 간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어류 종류를 조사한 결과 42%가 아열대 어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최단단인 제주도는 최근 40년간 수

온이 1.5도 상승하는 등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에서 제주연안에 관찰된 어류는 청줄돔, 가시복, 독가시치, 거북복 등 아열대 어종 28종을 포함해 모두 67종이었다.

청줄돔과 독가시치의 올해 출현 개체수는 각각 지난해보다 52%, 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 아열대성

어종이 제주도에 정착,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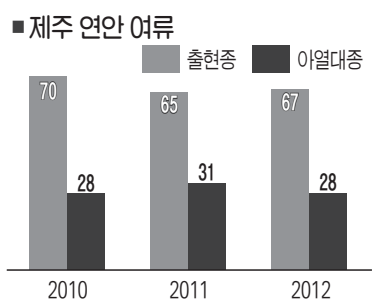
올해 해역별로는 남부해역에서 18종, 동부해역에서 15종, 서부해역 13종, 북부해역에서는 10종의 아열대성 어종이 관찰됐다.

아열대성 어종이 점차 증가하고 연중 서식하는 것으로 미뤄 이들 아열대성 어종이 제주 연안 환경에 적응



하면서 서식 정착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수산과학원은 보고 있다.

차형기 아열대수산연구센터장은 "아열대성 어종이 제주 연안에서 출현하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며 "제주 연안의 어장 관리 계획을 마련을 위해 아열대성 어종과 정착성 생물과의 상호관계 조사 등 자원생태학적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야생생물 밀거래 규모, 연간 190억 웃돌아

멸종위기에 각국 안보까지 지구건강 위협

야생 생물 밀거래가 세계적으로 최소한 매년 190억 달러(약 20조3300억원)를 웃돌고 있어 자연 보존은 물론 치안과 안보 등 각 부문에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세계야생기금(WWF)이 18일 밝혔다.

세계야생기금 보고서는 야생 생물 밀거래가 마약과 위조품, 인신매매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밀거래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이 문제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대책도 내놓지 않아 조지벌레같이 야생 생물 밀거래를 고수하 위험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밀거래로 인해 지구상의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로 물러는 외에도 조지벌레같이 커지고 각국 안보에 해를 끼치는 한편 지구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건설팀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임찰에서 평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근린주택
▷ 동구 소태동 준주거지역 5층상가주택 대지561㎡ 건물 1440㎡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
• 금남로 대지 80 건평 300 감정 17억선 10억3천
• 중앙로 대지 27 건평 30 감정 1억9천 매도 1억7천

신한공인중개사
★신축원룸 매매전문★
▷ 생촌동 문연리 2분 일투룸 15개 (주력, 옥탑) E/L, 벽돌시공, 공사완료 매가 892천
▷ 생촌동 상무지구 2분 일투룸 15개 (주력, 옥탑) E/L, 벽돌시공 매가 892천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 급하게 처분하실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중용히 소리소문 없이 물건 처분에 드립니다.
●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나요?
월세 수입과 매도 차익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 용도 • 전원주택, 과수원, 연수원, 절, 한옥마을 등
• 면적 • 16,789평방미터(약5,078평)
• 위치 • 백암산(남측정성초위)
• 대표지번 • 장성군 북하면 생음리7-14번지(14필지)
• 매각금액 • 5억45천만 원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